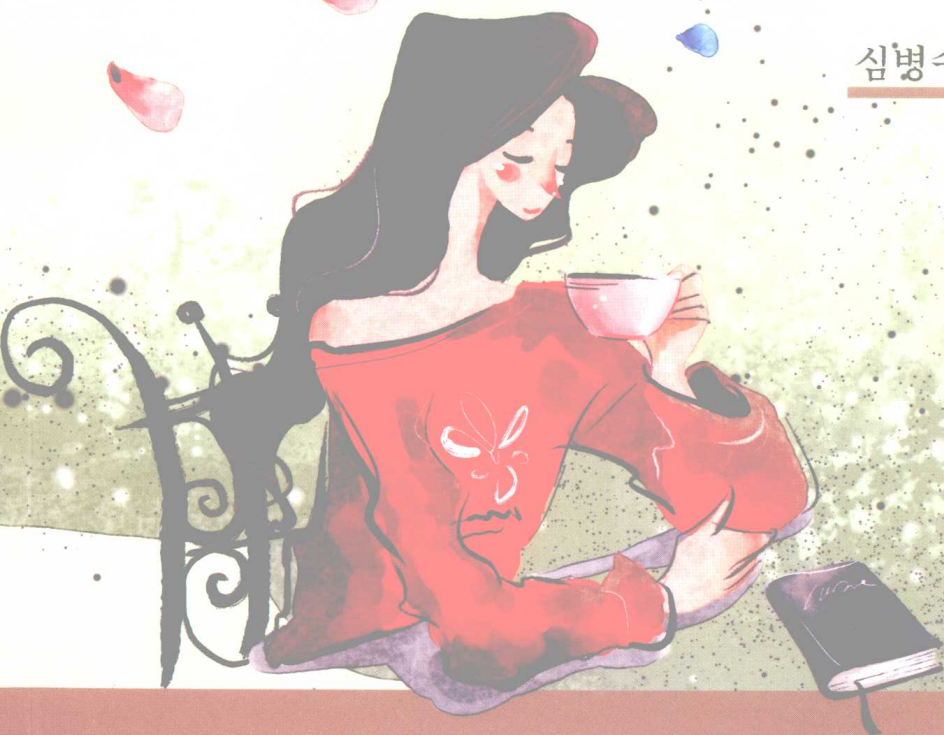


장편소설

그녀 마음의 모래밭

심병수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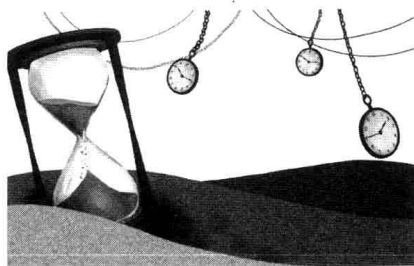
현실이 그녀의 소원을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고있지만 나는 소설에서라도 그녀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성공의 대안을 바라보게 해주고싶었다. 그래서 향선이라는 인물에게 행운을 주고 사랑을 주고 무지개와 같은 희망을 심어주려고 노력했다.

연변인민출판사

장편소설

그녀 마음의 모래밭

심병수 저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최동일

책임교정: 남금월

기술설계: 정선숙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那女人心中的沙田: 朝鲜文 / 沈秉守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9.7

ISBN 978-7-5449-0648-7

I. 那… II. 沈… III. 长篇小说-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47.5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9) 第123605号

那女人心中的沙田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吉市学苑彩色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9.5 字数: 25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648-7 (民文)

版次: 2009年7月第1版

2009年7月第1次印刷

印数: 1-500册

定价: 22.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차 례



향선이	1
철거(动迁)	27
만남	49
죽마고우	71
방문	89
푸른 하늘 은하수	109
엄마의 죽음	125
가출한 안해	147



명호	167
실업	185
사랑이였다면... ..	201
다이아몬드반지	215
잊었던 사람	237
한국간 남편	259
떠나는 그녀	277
후기	293

향
선
이





“따르릉...”

퇴근종이 울리자 여인들은 일제히 전동재봉기를 멈춘후 바빠 가방을 챙겨 어깨에 메고 출입구로 나갔다. 전동재봉기의 소란스럽던 소리가 멎고 노동자들이 나가자 차간은 물뿌린듯 조용해졌다. 사람 키보다 좀 높게 줄줄이 매달린 40W짜리 형광등의 창백한 불빛이 천정에 그림자를 이루어 집안은 더욱 괴괴해보였다.

향선이는 언제나 그러듯이 작업대를 질서정연하게 정리하고 흠어져있는 실밥과 조각천들을 한줌 주어들고 나오다가 쓰레기통에 버렸다.

어깨에 멘 모서리가 뿌옇게 닳은 인조가죽가방이 유표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층계를 오르기 시작하자 차거운 바람이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안경에 서리가 끼면서 거리가 희미하게 보였다.

향선이는 언제부터인가 옷실을 바늘에 꿰는데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안경방에 가서 검사를 하니 근시라고 했다. 할수없이 귀찮아도 안경을 맞추었다.

지하실의 곰팡이냄새와 천냄새가 뒤섞인 답답한 공기속을 빠져나오니 향선이는 살것 같았다.

거리의 희미한 가로등 불빛들이 검푸른 하늘에 놀리워서 간들간들 숨을 쉬는듯싶었다.

오늘은 딸 설화의 생일이라 향선이는 작은 단설기라도 사들고 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거리를 향해 자전거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향선이는 사실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서 상에 올렸었다. 하지만 입이 밟은 설화는 미역을 좋아하지 않아서 몇술 뜨네 하고는 수저를 놓는것이였다. 향선이는 그러한 설화를 묵묵히 바라보기만 했다. 요즘에 와서 설화는 웬 일인지 가끔가다 무작정 짜증을 내곤 하여 말을 걸기도 주저되었던것이다.

어느날 저녁에는 우연히 설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네 아빠는 몇년이 되도록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

도 전하지 않는 몰인정하고 무책임한 인간이다.”라고 향선이
가 몇마디 했더니 설화가 아버지편을 들어 울고불고 야단을
쳐서 진땀을 뻘적도 있었다.

향선이는 지난 금요일 오후에 설화네 반 학부모회의에
갔다가 담임선생님이 하던 이야기가 상기되었다.

“우리 반 녀학생 대부분이 사춘기에 처해있기에 평소에
안하던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식을 리해
하고 다독여주어야 합니다. 욕하고 압력을 가하면 성적이 더
떨어질수도 있고 엄중하면 가출할수도 있으니 사랑으로 잘
품어주어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설화도 사춘기를 앓는거야.)

향선이는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며 래일에는 설화를 데리
고 나가 옷가지나 사입히려고 생각했다. 따져보면 설화도 사
실 불쌍한 애였다. 말을 쨌쨌 번지던 때로부터 10년이 되도
록 아버지없이 생일을 쇠여왔다.

희한하게도 설화의 생일이면 해마다 눈이 내렸다. 설화
를 낳던 해도 밤새껏 함박눈이 내려 외할아버지가 눈꽃이라
고 이름을 지어주었던것이다.

시내 변두리에 있는 마을에는 가로등이 없었다. 향선이
는 평소 퇴근길에는 부근 살림집들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을
빌곤 했다.

집에 도착한 향선이는 자전거를 코구멍만한 창고에 밀어
넣었다. 벌써 10년이나 굴려서 그런지 인젠 말도 잘 듣지
않는 자전거였다. 향선이는 동그스름한 이마에 송골송골 내

돈은 비지땀을 연신 주먹으로 훔치면서 바깥 층계를 타박타박 걸어올라 2층 서쪽 두번째 문앞에 섰다.

“엄마 왔다.”

향선이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목소리를 한 옥타브 높였다.

“왔어? 외할머니 또 아프다.”

설화는 향선이의 손에서 단설기를 받아들며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떠듬거리다가 단설기에 눈길을 박았다. 단설기에 적힌 글을 내려다보는 설화의 입가에 잠깐 실웃음이 스쳐지났다. 설화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향선이를 바라보았다. 깊고 까아만 눈망울에서 샘물같이 맑은 빛이 흘러나왔다. 향선이는 설화를 향해 살며시 웃어보이며 어머니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엄마, 많이 아파?”

향선이는 맨 구들에 팔을 베고 누워있는 로인에게로 다가가서 로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은 없는데... 위생소에 가서 주사라도 맞아야지. 이러구 있으면 어떡해요.”

“오늘 하루종일 머리가 아프고 뒤통이 뻗뻗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 손가락 하나 까닥할 맥도 없어서. 병원 가면 돈을 써야잖아. 다 아는 병인데. 설화가 줘서 혈압약을 받아 먹었다. 너를 보니 좋아지는것 같구나. 공장에는 편지가 안 왔데?”

희끗희끗한 머리칼이 어수선했던 머리우에 수건을 질끈 동

여맨 할머니는 무던히도 초췌해보였다. 그는 몸을 힘겹게 일으켜 앉으며 기력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편지소리 말랬지.”

향선이는 짜증난 목소리로 한마디 하고는 일어서더니 목수건을 풀고 옷을 벗어 벽에 박힌 못에 걸었다.

향선이는 언제나 머리칼을 곱게 뒤로 빗어넘겨 굵은 천 고무줄로 묶었다. 함치르르한 머리칼을 달랑거리며 바빠바빠 뛰어나닐 때면 30대 초반이라 해도 믿을만했다. 하지만 눈가와 눈두덩에 생긴 잔주름과 입가에 그어진 실주름은 30대 후반의 성숙된 여인의 단아함을 나타내고있었다. 더구나 랑미간에 생긴 세로주름은 언제나 편치 못한 그의 마음을 잘 드러내보이는듯했다.

향선이는 평소 말수가 적은편이어서 어쩌다 남하고 말을 할라치면 좀 진한 눈섭을 살며시 내리깔고 두손을 팬스레 만지작거렸다. 언제나 불안한 마음이 로출되어 상대로 하여금 리유없이 가엾은 마음이 생기게 했다.

지금 향선이네가 사는 집은 위낙 아버지 단위의 숙사였는데 후에 종업원들에게 혈값을 쳐서 준것이였다. 지은지 오래된 층집인데 조선족가정들의 생활습관에 맞게 부엌을 두고 석탄을 떼게 설계가 되어있었다. 5~6층집도 이렇게 되어 있어 석탄을 퍼올리고 석탄재를 퍼내려가기가 여간만 불편하지 않았으나 사람들은 그저 이렇게 사는것이 법이겠거니 하고 생각하는듯싶었다. 더구나 남자들이 없는 집안이나 있어도 게으른 집들에서는 여자가 석탄을 퍼올리고 석탄재를 퍼내려

가야 하기에 정말 고역이나 다름없었다.

“설화야, 상점에 가서 포도주나 한병 사오너라, 녹은걸로. 사탕이나 과자는 내가 먹고싶은걸로 한근씩 사구.”

향선이는 앞치마에 손을 닦고 호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10원짜리 한장을 꺼내여 설화에게 넘겨주었다.

돼지고기를 볶고 잉어 한마리를 지저울린 저녁상은 나름대로 풍성해보였다. 조손 3대 녀자 셋이 밥상에 마주앉았다. 남자가 없는 생일상이라도 설화가 기분이 좋아하니 외할머니도 어머니도 덩달아 얼굴을 펴수 있었다.

향선이가 생일단설기에 꽂힌 초에 불을 붙이고 손벽을 치며 생일축하노래를 불렀다. 머리가 아프다던 할머니도 머리에 동인 수건을 풀어버리고 지렁이처럼 피줄이 돋은 손으로 손벽을 쳤다.

.....

사랑하는 우리 설화
생일축하해요.

“우리 설화 노력해서 꼭 대학에 가야 한다.”

녹거리포도주를 컵에 부어 한잔 마신 향선이의 얼굴은 금시 빨갛게 달아올랐다. 향선이는 이렇게 일년에 한두번씩 술을 마시고 펄펄 울어대군 하였으나 그래도 옥땃힌 가슴은 풀리지 않고 사람만 지쳐갔다.

“엄마, 고마와. 나 공부 잘할게.”

설화도 오늘은 생일이라고 그러는지 화를 내지 않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어머니를 정겹게 바라보았다.

“래일은 일요일이니까 한나절 쉬기로 했다. 나하구 시장에 가서 너의 옷이나 한벌 사자. 음- 피곤해. 설것이는 네가 해라. 난 먼저 눕겠다.”

향선이는 옷방으로 올라가서 미닫이를 닫고 자리에 누웠다.

옷방은 설화가 쓰고있었다.

외할아버지가 쓰던 낡은 책상위에 탁상등이 놓여있었다. 작은 사진틀에는 색동저고리에 파란 치마를 입고 리본이 달린 모자를 쓴 설화가 중간에 서서 달콤하게 웃고있는 가족 사진이 들어있었다. 얼굴에 행복의 꽃이 핀 아빠, 엄마가 량쪽에서 설화의 손을 잡고있었다.

벽에는 설화가 좋아하는 중국과 한국의 가수, 영화배우들의 사진이 여러장 붙어있었다.

아버지가 폐암으로 세상을 뜨고나자 향선이는 어머니의 방으로 건너오고 설화에게 조용히 공부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었던것이다. 미닫이로 막은 방이라서 소리는 통하지만 여자들만 사는 집이라 언제나 조용했다.

향선이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있는 장성구에게 시집을 왔었다.

결혼초 그들은 세집에서 살았다.

시동생 성남이는 상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곳에서 취직을 하고 결혼하여 살았기에 큰일이 없으면 설에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설화가 5살 되던 해, 제분공장에 출근하던 남편은 파산에 직면한 공장이 무기한 방학을 하는 바람에 무직업자로 되었다. 공장에서 주는 몇십원 푼한 생활비로는 살수가 없어서 막벌이라도 하고싶었지만 그런 일자리도 없었다. 남편은 일년가량 집에서 놀며 일하며 하다가 돈을 꾸어가지고 한국으로 갔다.

이듬해 잔병으로 시름시름 앓던 시어머니가 아들도 없는 집에서 세상을 떴다.

그날 향선이는 시어머니와 한방에서 자다가 자정이 넘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에 놀라 깨어났다. 향선이는 시어머니의 머리맡으로 엉금엉금 기어갔다. 딱 벌리고있는 입으로 날숨 쉬는 소리가 가늘게 들렸다. 반쯤 뜨고있는 눈은 켠하니 풀려있었다. 향선이는 놀라서 시어머니의 몸을 마구 흔들며 목이 터지게 시어머니를 불렀지만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이 흔들는대로 향선이에게 몸을 맡기고있었다. 향선이는 한참 부르다가 섬뜩한 생각이 들어서 시어머니의 가슴에 귀를 대보았다. 심장박동소리가 들리지 않는것 같았다. 향선이는 기겁하여 어쩔줄을 몰랐다. 죽음의 공포가 집안에 찾아들어 온몸이 쭈어드는듯싶었다.

향선이는 맨발바람으로 뛰어나가 평소에 잘 다니던 이웃집 할머니를 불렀다. 그리고는 설화를 업고 친절으로 가서 설화를 친절어머니에게 맡겨놓고 시내 공용전화를 찾아 시삼촌네 집에 시어머니의 정황을 알렸다. 그후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로 겨우 자전거페달을 돌려 집에 돌아와보니 동네할머니들 몇분이 더 찾아와서 시어머니의 시신을 지키고있었다.

친정아버지가 세상을 떴을 때는 친정어머니가 옆에 계셔서인지 무서움이 별로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죽음은 슬픔보다 무서움이 더 큰것 같았다. 그래도 장례식장에서는 큰아들없이 죽은 시어머니가 불쌍하여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와 슬피 울었다.

장례가 끝난후 향선이는 친정집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의 운명을 지켜보던 그 집에 있기가 무서웠던것이다. 친정어머니도 향선이를 보고 세집을 잡는데 돈을 쓰지 말고 친정집에 있다가 남편이 한국에서 몇년간 돈을 벌어오면 아파트를 사서 나가라고 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앞날을 약속했던 아파트는 10년이 되도록 그림자도 잡을수 없었다. 한국으로 간 남편은 첫 2년간은 전화로 소식을 종종 전하였으나 나머지 8년간은 함흥차사가 되어 편지 한장 없었던것이다.

향선이는 술이나 거나하게 마시고 잠이라도 폭 자려고 누웠지만 앞집 2층 지붕꼭대기에 걸려있는 창백한 반달이 그의 잠마저 훔쳐갔는지 되려 정신만 말뚱말뚱해졌다. 향선이는 팽팽해지는 머리속에서 지난날의 아픔이 양파껍질마냥 한까풀 한까풀 벗겨지는것을 느꼈다.

남편이 한국에 가서 소식이 없자 향선이는 차츰 초조와 근심과 원망이 한가슴씩 올라오군 했다. 그러는 마음을 어데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 향선이는 늘 허탈감에 빠져 가

숨이 허수하게만 느껴지는것이 모래밭에 물을 붓는듯한 심정이었다.

정말이지 끝도 없이 어디론가 추락하는듯 몸도 마음도 지쳐갔다. 잠들어 세상 돌아감을 느끼지 못할 때와 설새없이 돌아가는 재봉기의 실땀을 도정신해서 들여다볼 때를 내놓고는 깨여있는 시각 자체가 너무나 버겁다고 생각되었다.

향선이는 남의 중매로 장성구를 만났고 석달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남들처럼 낭만적인 연애시절도 있는것 같지 않았고 시집을 와서 가슴이 확 트이게 행복했던 나날도 별로 있는것 같지를 않았다. 구구히 그중 좋았던 시간들을 꼽으라면 그래도 설화를 낳을 때라고 하고싶었다.

간호사가 이마에 보습털이 보송보송한 피딩이를 안고 와서 얼굴옆에 대줄 때 느껴지던 가는 숨소리, 그 작은 입으로 젖을 빨 때 처음으로 가슴속 밑자락에서 몽클 솟아올라오던 진한 감동은 어느때까지도 잊혀질것 같지 않았다.

남편이 한국으로 떠나 얼마 안되어서였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돌아온 향선이는 신문 한장을 어머니앞에 내놓았다.

“엄마, 설화를 맡아줘. 난 복장기술을 배우고싶어.”

향선이는 《과학기술신문》에 실린 “재봉기술자양성반 학원모집”광고를 손으로 짚으면서 어머니에게 청들었다. 양성반에서 한달간 재봉기술을 배우는데 드는 학비는 200원이라고 했다. 학비를 내지 않고 등록금 1,000원을 선대해주면 양성반이 끝난후 원금을 돌려주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이 두가